

대신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불규칙검사 대상선별표(책형)상의 다음 신고번호, 즉 100번인 경우 101번을 검사대상으로 재선정해 가능한 불규칙검사비율(1%)을 유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전국세관에서 반드시 수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인 공통필수 검사대상을 종전 17개에서 11개품목으로 축소조정한 대신 新規수출, 原狀態수출, 유명상표수출등 稅法우려가 있는 수출형태(3가지)를 새로 검사대상에 추가시켰다.

이에 따라 3천달러이하 少額수출등 세관의 品目기준 수출검사부담이 줄어든 대신 수출형태가 통상마찰, 부정환급, 위장수출등 우범성 우려가 있는 수출인 경우 수출통관이 힘들게 됐다.

관세청은 관세행정규제 완화 및 수출지원을 위해 지난 6월 14일부터 공통필수, (세관)자체필수, 불규칙검사등 수출물품의 전체 검사비율을 9%에서 5%이내로 낮추고 검사대상물품은 非公開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수출패턴 다양화, 금융실명제 실시등으로 품목기준 수출검사만으로는 통상마찰 우려가 있거나 부정환급, 위장수출등 위장·탈법수출에 대한 세관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검사대상을 수출형태 규제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 國內外 情報 ◆

## 東南亞 海底케이블 敷設 활기

### — 경제성장으로 通信수요급증 예상 —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국제통신용 해저케이블 부설프로젝트가 활기를 띠고 있다. ‘APC케이블’이 이달 3일부터 운용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FLAG케이블’ 및 ‘APCN케이블’이 3년후 운용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프로젝트간에는 회선사용료를 둘러싸고 새로운 요금체계의 모색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고도성장으로 인해 앞으로 통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관련업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APC케이블’은 일본의 국제디지털통신, 국제전신전화, 美AT & T등이 중심이 되어 부설한 국

제통신용 해저케이블이다.

아시아지역의 경제거점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등 5개지역을 연결하며 회선용량은 전화회선으로 환산하여 1560회선가량 된다.

오는 2005년까지의 회선용량을 예상하여 부설한 케이블인데 그 이전에 회선용량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FLAG케이블’과 ‘APCN케이블’은 그와같은 동남아시아지역의 통신수요급증을 예상하여 추진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FLAG가 美지역전화회사인 나이넥스가 중심이 된 프로젝트인데 반해 APCN은 일본의 국제전신전화를 비롯하여 싱가포르텔레콤등 아시아의 통신사업자가 협력하는 프로젝트이다.

FLAG는 영국에서 일본까지 연결하는 장거리케이블프로젝트이며 동남아시아의 여러국가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FLAG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의 형태와 요금체계는 국제통신업계에 혁명적인 영향을 파급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전의 해저케이블프로젝트는 각국 국제통신사업자의 공동출자사업인데 반해 FLAG는 나이넥스 외에 상사, 금융기관이 공동사업체를 설립, 완성된 통신회선을 각국의 통신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취할 계획이다.

FLAG의 장점은 국제통신업자가 필요한 분량만큼의 통신회선을 구입할수 있다는 점이다.

회선사용료도 위성회선 및 타케이블보다 싸게 설정하여 종래보다 30~50%까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APCN도 FLAG에 대항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검토, 요금경쟁에 양보하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한편에서 이 두케이블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통신수요가 늘어날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관련소식통에 따르면 FLAG는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걸쳐 APCN측에 동남아시아지역의 일부 케이블에 대해 공동프로젝트로 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으나 이같은 움직임으로 미루어 볼때 동남아시아의 케이블프로젝트에서 FLAG측이 수요불안을 노출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한편 APCN측은 금년 봄 연결지역을 축소, 회선의 2중화를 포기하는 등 계획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관련소식통들은 이 두 케이블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순탄하게 추진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 ▲ 동남아의 주요 해저케이블 계획

케 이 블 명	연 결 지 역	운 용 일 자
APC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9월 3일
FLAG	일본, 홍콩, 태국, 인도,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브롤터, 아랍에미리트	96년말
APCN	일본,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96~97년

## 日전기업계, 장기不況탈출 안간힘

### — 需要침체에 輸出採算性악화로 허덕 —

日本전기업계에 드리워진 불황의 그림자가 좀처럼 거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데 이어 올상반기도 성장률이 계속 둔화됐다. 게다가 하반기 역시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내수부진에 엔高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업계는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日전기메이커들은 장기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 합리화와 감량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조정등의 문제에 봉착,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구노력이 한계에 달하고 감수감익 결산이 지속되자 버블호황시 벌어들인 이익을 토해내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日관련업계는 정부에 내수 진작책등 정부차원의 불황 타개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電波新聞 보도에 따르면 日전기업계는 버블경제 붕괴와 엔高로 예년에 보기도 못한 심각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가전을 비롯 컴퓨터등 대부분의 전기메이커들은 내수불황과 수출채산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버블경제 당시의 설비증설과 과잉고용등으로 경상비는 증가, 경영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시장여건이 좋지 못할 경우 감량경영과 생산코스트 인하등 합리화작업 가속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의 일환으로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삭감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설비투자 와 연구개발비도 삭감되는 추세에 있다.

또 인원합리화 정책으로는 신규인력 채용억제, 사무직 직원의 영어부배치, 사원들의 자회사파견, 임시계약사원 해고·일시휴가등이 검토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 합리화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채산성이 맞지 않는 제품생산이 중단되거나 투입기 중수가 축소되는 외에 해외생산 및 해외 부품조달 비율 확대등이 추진되고 있다.

상반기중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가전은 재고조정이 거의 마리됐지만 한계점에 달한 상품들이 많아 매출은 부진했다. 에어컨은 지난해에 이어 대폭 감소, 새로운 영업전략 수립이 요구됐다.

AV기기는 VCR·무비·오디오를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수출비중이 높은 AV기기는 엔高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컬러TV는 대형 및 저가기종등등이 잇따라 투입됐지만 수요확대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설비투자관련 전기제품은 민간설비 투자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중전기기 매출은 전력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호전되는듯 했으나 역시 부진했다.

보급률이 높은 전산기·OA기기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범용컴퓨터의 경우 금융기관용이 금융산업 불황으로 두자리수 감소했으며 퍼스컴은 매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저가경쟁 격화로 수익률은 감소했다. 특히 범용컴퓨터는 다운사이징등 구조변화를 겪으면서 매출이 감소했다.

통신기기중에선 무선전화기의 매출이 약간 증가, 휴대전화기 실적을 웃돌았다. 계측기는 바닥권을 탈출했는데 그중 IC측정기는 반도체 생산확대에 힘입어 매출 급증세로 돌아섰다.

전자부품은 민생용·산업용 할것 없이 수요가 부진했지만 일부품목은 그런대로 수주가 늘었다.

반도체는 D램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 채산성도 회복됐다. 이와함께 액정디바이스도 매출이 급신장했다.

日전기업계의 올하반기 경영실적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부진할 전망이다. 중전기부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문이 엔高와 금융수지 악화로 경영압박이 예상되고 있다.

수익은 악화되고 있지만 日관련업계는 차세대 반도체·컴퓨터·통신시스템·하이비전·멀티미디어등 향후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투자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지만 상황이 회복되면 첨단 제품은 매출확대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日전기업계는 기업체질 강화·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사업재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자구 노력은 지금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장차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전기업계의 생산액 비교

(%, ▲은 감소)

	91년	92년	93년 상반기
통신기기	8.1	▲6.3	▲6.2
민생용기기	11.2	▲16.0	▲14.0
전기기기	16.7	▲11.0	▲10.9
룸에어컨	32.0	▲14.6	▲17.7
전자기기	7.2	▲19.8	▲16.9
컬러TV	4.1	▲10.9	▲6.9
VCR	▲5.8	▲24.5	▲23.8
카메라일체 형VCR	24.9	▲33.8	▲24.2
스테레오	17.0	▲13.3	▲18.1
산업용전자기기	2.5	▲10.2	▲7.5
통신기기	2.8	▲7.9	▲7.5
휴대·자동차 전화	47.0	▲19.8	▲16.4
전자계산기	3.0	▲10.9	▲11.0
퍼스컴	1.8	7.1	▲9.2
주변장치	0.1	▲4.2	▲7.9
전기계측기	1.9	▲17.6	0.0
사무용기기	5.1	▲6.3	▲13.1
전자부품·디바이스	5.9	▲10.0	▲0.8
전자부품	3.9	▲12.1	▲2.7
반도체	7.1	▲11.5	▲1.0
액정디바이스	22.3	27.7	27.2

## EC, 공급전압 230/400V ± 10%로 통일할 계획

— '95년부터 2003년 까지 단계별로 —

유럽은 EC통합이래 국가간 공급전압이 영국 240/415V(+14.6, -15.4V), 영국이외 국가 220/380V(±22)로 서로 相異하여 무역장벽처럼 여겨졌으나, 95.1.1부터 1단계로 영국은 230/400V(-6%~+10%), 他 10개국은 230/400V(-10%~+6%)로 변경하고, 2003.1.1부터는 모든 EC국가가 230/400V±10%로 통일할 계획이다.

1987년부터 공급전압의 통일을 계획하여온 유럽규격위원회 (CENCLEC)가 88.11에 統一指針書 472 「低電壓공급시스템에 관한 공칭전압」을 발표하여 영국은 92.10월 貿易産業省에 심의회를 설치 검토하여 '93.6월에 統一指針書 472의 수용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영국 조명업계는 전기기술위원회에 전압통이로 大陵에서 수입될 230V제품은 전압 변동폭이 커서 전구의 수명이 짧아지고, 화재등에 위험이 있으므로, 변동폭을  $\pm 10\%$ 에서  $\pm 6\% \pm$ 로 변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국전기협회는 전압변동폭이  $\pm 6\%$ 로 좁혀질 경우, 지방배전사업자에게 변압기교체등으로 30년~40년에 걸쳐 6억 8천의 비용을 부담지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美 GE사, 日本 東京電力(株)와 세계 최대 규모의 複合火力設備 계약 체결 - 시설용량 2,800Mw, 12억불 규모 -

미국의 GE사는 일본 동경전력(주)와 총 계약금액 12억불에 달하는 시설용량 합계 2,800Mw인 복합화력발전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1990년대 중반 상업운전을 목표로 일본 Yokohama에 건설될 동 복합화력발전소는 시설용량면에서 세계 최대규모로, GE사가 개발한 최신 복합화력기술인 STAG 109F Unit 8조가 설치될 예정인데 각 Unit는 MS9001F형 가스터빈 1기와 신형 가압재령증기터빈 1기, 수소냉각식 발전기 1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Unit 당 350Mw의 발전용량을 갖게 된다.

동 계약을 통해 GE사는 설계 및 건설용역과 함께 주기기를 공급하게 되며, 나머지 보조기기 공급은 일본의 Hitachi Ltd사 및 Toshiba Corp. 사가 각각 맡게 되는데, 동경전력(주)의 주요 발전설비는 모두 GE사가 공급한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양사는 과거 근 50년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 Washington D.C.에 소재한 자문용역기관인 Washington Int'l Energy Group 의 Roger Gale 사장은 동 계약체결은 미국과 일본간 무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발전 신기술이 미국내에서 채택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논평하고, 일례로서 미국 GE에서 개발한 신형 원자로인 ABWR (Advanced Boil-

ing Water Reactor)가 동경 전력(주)에서 건설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한편, GE사는 동 복합화력발전소의 환경기준 준수를 위해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의 설치와 함께 Dry Low Nitrogen Oxide 연소기술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동경전력(주)가 GE사로부터 도입한 바 있는 총 시설용량 2,000Mw의 Futtsu 복합화력발전소는 NOx 배출량이 10ppm미만으로 동종의 발전소 가운데에서는 세계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베트남, 外資유치 1500Km 送電線路 建設 - 전력난 타개 방편으로 -

베트남은 에너지部관리 및 주요製造業者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방콕에 파견하여 電力不足事態 해결을 위해 泰國電力會社들과의 협력문제를 논의하고 Elenex Thailand 傳覽會에 참가한 다국적 기업들과 電線과 變壓器를 합작으로 自國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베트남대표단을 인솔한 6개 에너지 電氣機器제조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部의 관리인 H.T.An은, 이번 방문이 外國會社들과의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Hoa Binh의 1,720Mw 水力發電所와 Ho Chi Minh 市인근 Phn Lan 變전소間 1,500km의 500Kv 送電線건설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Australia 전력회사의 Pacific Power Int'l과 Victoria電力廳이 설계를 맡았으며 外國의 회사가 5개 變電所입찰에 참가하였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베트남 産業 및 交易중심지인 남부지방으로 전력을 送電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베트남은 4개의 發電所 (3,000Mw의 Son La 수력발전소, Hanoi 인근 440Mw 石炭 火力 발전소, Ho Chi Minh 市인근에 600Mw石油火力, 中部 Yali에 100Mw水力발전소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Son La 수력발전프로젝트는 그 剩餘電力을 泰國에 판매함으로써 어느정도는 자체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나머지 프로젝트는 資金調達이 문제로 되어있다. 이를 위해 the World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및 日本金融기관들은 현재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활동중이며, 베트남과의 교역에 대한 美國의 禁輸조치해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 필리핀, '93년말까지 900Mw의 電源開發 - 전력부족 사태의 年內 해소를 위해 -

필리핀은 만성적인 電力不足事態로 經濟成長을 하향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필리핀 國營電力會社는 최근 電力不足事態를 내년이전까지는 반드시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Luzon 지역의 電力需要가 3,300Mw인데 2,500M의 공급능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國營電力會社는 연말까지 900Mw 發電所를 가동시켜 Luzon 本島에 대한 電力危機를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國營電力會社는 12월까지 500Mw의 發電所건설을 완료하고, 發電 船舶(Power Barge)으로부터 400Mw의 電力을 공급할 예정이다.

國營電力會社는 12월까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送電線설치와 기존 送電線의 보강에 전력하고 있다.

## 멕시코, 外國會社 및 民間資本에 의한 發展設備 확충추진 - 향후 12년내 54Gw 발전설비 보유 -

멕시코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50년만에 처음으로 민간자본과 외국회사에 전력사업의 참여를 개방할 것으로 알려 졌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들은 멕시코의 발전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의 수입, 수출 또는 판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장관 Emilio Lozoya는 “멕시코는 향후 12년내에 현재의 발전설비 용량(28Gw)의 약 두 배인 54G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관리들은 추가로 필요한 26Gw중 17Gw는 화력(Thermoelectric)발전소 설비확충으로, 4Gw는 수력 및 지열발전으로 그리고 나머지 5Gw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신규 프로젝트는 독립발전사업에 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 국가 에너지 위원회는 새로운 법규에 의거 민간전력을 구입할 예정이나 배전부문 서비스



는 계속 에너지위원회가 관장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고출력 燃料電池 開發 - 세계 최고 출력 1,330W -

일본의 도쿄전력은 발전효율이 높은 平板型固體電解質연료전지부문에 있어서 지금까지 세계최고출력인 1330와트의 발전에 성공했다.

연료전지를 상업운전하는데 분해형전원상태에서 출력 200킬로와트이상, 연속운전 4만시간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조기실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업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연료전지는 물의 전기분해 순서를 역으로 하여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구조로 되어있다.

동사는 연료에 수소가스를 사용하여 성공했으나 천연가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배기사스의 온도가 섭씨 1천도나 되기 때문에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결합한 복합발전시스템으로 할 경우 에너지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도 있다.

## 中國, 전력생산설비 수입확대 - 외환부족으로 물물교환 추진 -

중국이 전력생산능력 확충과 전력부족난 해소를 위해 전력생산설비 수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전력설비공사(CEC)는 국내의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 외국으로부터의 전력생산설비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환부족난의 심화로 전력생산설비의 수입은 물물교환의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 공사는 전했다.

린 위슈이사장은 전력생산설비의 수입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정부 및 기업들의 자금제공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하고 현재 독립국가연합(CIS) 및 동유럽국가들과 물물교환방식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

다고 말했다.

중국경제의 성장추세를 감안할 때 중국의 전력생산능력은 오는 90년대말까지 연간 1200~1400만 킬로와트이상 확충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력생산설비 생산능력은 연간 800만 킬로와트에 불과해 나머지 부분은 수입을 통해 충당해야하는 실정이다.

올해 중국은 1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생산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며 상반기중 500만 킬로와트의 설비를 확충, 가동에 들어갔다.

린사장은 중국의 전력생산부문은 성장 전망이 아주 밝은 상태라고 말하고 외국기업들이 CEC와의 합작을 통해 전력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린사장은 현재 중국 전력생산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차관 도입은 중국내 은행의 신용보증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 절차가 복잡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CEC가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도미니카공, 配電機器 수요 증가세 - 産業구조 改良으로, 브라질 · 臺灣진출 급증 -

도미니카(公)은 계전기, 개폐기, 보드, 패널, 소켓 등 배전에 소요되는 각종기기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규모는 약 1,100만弗로 추산된다. 자동제어 패널상자는 비교적 좋은 품질로 국내생산되고 있으나 시장의 10%를 점유하는데 불과하며 그나마 금속판을 비롯한 일체의 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82~86년중 회로보호 및 연결용 전기기구, 스위치류의 수요는 발전부문의 성장정체로 감소되었고 86~90년중에도 도미니카(公)의 경제불안과 정책부제로 인해 불안정적이었다. 그러나 90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확충 및 개발계획을 실시함에 따라 수요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90년부터 92년까지 자동제어 패널, 계전기, 스위치, 차단기의 수요는 약 500만弗에서 1천만弗이상으로 상승했다.

아직 도미니카(公)의 에너지능력이 수요에 못미치고 인구증가 및 산업구조가 개량되고 있어 수요 증가세는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세부품목별 수요동향은 다음과 같다.

◇ 계전기

계전기는 3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Thermic형으로서 컴프레서, 에어컨, 냉장고 등 자체 시동이 필요한 전기기구의 Magnetic starter로서 이용된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규격은 110V 및 220V용 10A짜리이며 440V용도 있으나 수요가 매우적다. 2번째 종류로는 Capacitor형이 있으며 발전기에 이용된다. 현지시장은 밀폐가 잘 돼 있는 전기분해식 계전기를 선호하며 중앙에 4개의 다리가 있는 검은색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3번째로는 상기 2종류에 속하지 않은 계전기이다. 계전기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분석하기가 곤란하나 대략 4~50弗선에서 분포하고 있다.

◇ 패 널

자동제어패널은 일단의 모터류 또는 기계류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해 변환기, 스위치 또는 차단기가 배열된 금속상자로서 주로 산업적 용도를 지닌다. 도미니카(共)에서는 자동제어패널은 그다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수동 또는 반자동식이 많이 이용되며 자동식이라도 실제 작업에서는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가격은 100~5천弗이며 패널 빈상자는 20~150弗이다.

◇ 스위치 및 차단기류

이 부류의 전기자재는 Push button식, Self-starter식, Breaker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산업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을 위한 용도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이중 차단기류의 수요가 가장 많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美國·일본·독일·대만·이탈리아·브라질의 순이며 최근 급속히 對도미니카(共) 수출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과 대만이다.

도미니카(共) 시장은 제 2차 세계대전후 전통적으로 독일산에 의해 지배되었으나 지리적 인접성을 이용, 미국산이 배턴을 이어 받았고 70년대 유류과동을 겪으면서 일본산이 침투하게 되었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 비슷한 품질로 딜리버리가 늦을 뿐 아니라 때때로 가격이 더 높으므로 더이상 원가절감이 안되면 브라질과 대만에 시장을 빼앗길 처지에 있다.

미국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계속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고 한편 가격적 이점으로 인해 브라질·대만·한국 등의 시장진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등의 수입규제는 없으며 관세는 25%의 종가세이다. 기타 준관세로서 7%, 이전세 8%가 있다.

경쟁요소는 가격과 품질인데 미국·일본·독일은 품질적인 면에서 브라질·대만·중국은 가격적인 면에서 상호간 경쟁상태에 있다. 한편 이 분야에서 가장 지명도 높은 상표는 GED와 Westinghouse이다.

과거에는 한국산이 대만처럼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요즘은 가격은 다소 올랐을지라도 품질은 매우 좋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소개된 중소기업 D社의 제품이 호평을 받고 있어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몇몇 수입상들은 사장이 Westinghouse와 GE에 매우 익숙해 있지만 가전제품이나 신변용품처럼 브랜드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풍토는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가격적인 이점을 제공, 교두보를 확보하고 품질이 좋다면 시장확대전망은 매우 밝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 전기공사는 정부입찰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므로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현지유력 대리점의 확보가 중요하다.

한편 도미니카(共)은 전기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부족하므로 기계고장시 수선비용이 수준이상으로 비싸다. 따라서 대고객 A/S의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판매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사제품의 조립 및 수선에 익숙한 현지기술자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산은 가격이 비싸지만 현지에서 이미 기술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래선을 타국으로 바꾸기 어렵게 되어있다. 또한 전기공사 일정에 맞추어 자재를 공급해야 하므로 딜리버리 단축을 위해 파나마 등에 제품저장 및 분배기지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보호만이  
기술개발을 앞당깁니다**

지적재산권보호

## 소방기기 배선에 내열, 내화전선 사용확대 - 연간 200억원 규모 신규 수요 창출 -

내무부는 소방기기 배선에 내열, 내화 전선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소방법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며 곧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화재사고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이며 한국전선공업 협동조합은 소방법 관련 규정 개정 즉시 시행을 위해 이미 '93. 4월 공업진흥청으로 부터 내열, 내화 전선의 단체표준 규격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소방용 내열, 내화전선은 금성전선등 국내전선 제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다.

현행 소방법 관련규정상 내열, 내화 전선은 덕트 공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 규격 및 사용구분이 명시 되어있지 않아 대부분의 건축업체가 경비절감을 위해 값싼 일반 비닐전선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시 배선이 조기에 단락되거나 소실되어 화재경보기, 비상등, 소화전등 소방기기들이 본연의 목적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야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일반 비닐전선은 일정온도를 넘어서면 유독성 가스를 내며 불붙는 단점이 있어 화재시 덕트를 통해 연결된 건물전체로 화재를 확산시킬 우려도 배제될 수 없으므로 고층건물이나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사용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규정 개정시 내열, 내화 전선은 덕트공사 없이 직접 배설하게 되므로 비록 값은 20% 정도 비싸나, 덕트공사 비용절감 및 가설공정 간편화로 일반 비닐전선 가설비용과 동등가격에 가설이 가능하여 건축주나 건축업체들도 내열, 내화 전선을 선호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장차 화재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 기대되며, 전선업계에서도 연간 200억원 규모의 신규수요 창출로 경영안정 및 경제력 제고를 위한 수요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協同化자금 融資조건 緩和 - 土地 · 建物 90% 施設費 전액지원 -

중소기업구조정기금중 협동화사업 지원자금의 융자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의 평소 애로사항들을 수렴, 상공부와 협

의를 거쳐 융자조건을 완화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설자금중 공동시설의 경우 과거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의 70% 이내, 시설비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지원금액을 제한했던 것을 토지·건물은 90%까지, 시설비는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개별시설의 경우 토지·건물은 종전과 같이 소요금액의 50%로 변함없으나 시설비는 공동시설자금과 마찬가지로 소요자금 전액(종전 90%)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개별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공해 방지시설 공동화사업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에는 창고공동화사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종전에는 1회전 소요운전자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되 中振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던 운전자금 지원 비율은 단서없이 전액 지원키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협동화사업 지원 자금의 대출금리(7~8%)와 대출기간(8~10년)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번 지원비율 확대조치는 9월 1일 이후의 신규사업에만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실천계획 승인을 얻었거나 진단중에 있는 협동화사업의 지원자금 비율은 개정 이전의 조건을 적용 받는다.

협동화지원사업은 관련업종(동종 및 관련기술)을 영위하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장의 집산화, 시설의 공동이용 또는 사업의 공동화를 통해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등 생산성향상을 도모할 경우 中振公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中振公은 지난 79년부터 협동화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 530억원의 예산을 책정, 지금까지 18개 사업장에 124억 2600만원을 지원했다.

## KT마크 技術 111개 課題 선정 — 産技協 機械 29건 · 대기업 72개 —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국산신기술인정(KT)마크 대상기술로 111개 과제가 선정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업계가 신청한 398개 과제(400개기업)에 대해 지난 7·8월간 기술성·경제성·제품특성·품질관리체계 등에 중점을 두고 3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전체 신청건수의 27.9% 111건에 KT마크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건수의 6.3%인 25건은 기술적·경제적판단이 어려워 차기심사에서 재심키로 했으며 나머지 65.8%인 262건은 국산신기술로 인정키 어려워 KT마크 부여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국산신기술로 선정된 111개기술을 분야별로 보면 기계가 메디슨의 심장진단용 초음파 혈류측정 기술등 2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정보·통신(25건)·화학·생물(25건)·전기·전자(24건), 금속·비금속(8건)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6개)의 기술과제가 72개(선정률 32.6%)였으며 중소기업(37개)은 39개과제(선정률 2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기술과제는 기술의 발전속도·시장성등에 따라 3년내에서 KT마크 부여기간을 결정했는데 2년인 기술이 45건이었으며 3년인 기술은 66건이었다.

신기술이 계속 출현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는 대부분 2년으로 짧았으며 국내기술이 취약한 화학·생물은 모두 3년의 인정기간을 부여했다.

개별기업별로는 삼성사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성사(10건)·금성정보통신(8건)·럭키(8건)·기아자동차(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에서는 에이스아테나가 3건을 기록, 유일하게 2건이상을 부여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111개 기술에 대해 과기처는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기술에 이익이 있을 경우 해당기업은 공고후 1개월이내에 산기협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내년부터 KT마크의 선정작업은 연간 2회(2월과 8월)에 걸쳐 실시되며 내년 상반기심사용 대상 기술신청은 올 12월중 있을 예정이다.

한편 KT마크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고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국산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부여, 구매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로 'Korea Good Technology'의 약자다.

**우리상표 우리기술 밝아지는 우리경제**

## '93년 국산기술 인정마크 대상기술 (회원업체)

업 체 명	기 술 명	인 정 기 간
대 한 전 선(주)	초고압 케이블용 EPOXY절연물 제작기술	3년
대 한 전 선(주)	LASER 응용 비접촉 외경측정 기술	2년
(주) 동 아 전 기	이동전화국 기지국용 고주파 변환 제어기술	3년
이 천 전 기 공 업(주)	고전압 수중 전동기 제조방법	2년
이 화 전 기 공 업(주)	15KHz급 위상차제어 고효율 변환장치	2년
금 성 계 전(주)	분산형 공정제어 시스템의 실시간 처리 및 MAP통신기술	3년
금 성 계 전(주)	공작기계용 수치제어 기술	3년
극 동 전 선 공 업(주)	난연 무독성 전선제조기술	3년

### 품질경영 순회 설명회 개최 안내

공업진흥청에서는 경영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품질경영 실천을 위한 의식개혁과 추진요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업체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순회교육 일정

지 역 별	일 시	장 소	신 청 문 의
수 원	9. 22(수), 14:00-17:00	수원 상공회의소	(0331) 255-5461
대 전	9. 23(목), 14:00-17:00	한국자유총연맹 대전회관	(042) 257-2704
광 주	9. 24(금), 14:00-17:00	아시아자동차기술연구소	(062) 228-4311
대 구	10. 6(수), 14:00-17:00	섬유기술진흥원	(053) 563-1561
마 산	10. 7(목), 14:00-17:00	경남 사회종합복지회관	(0551) 66-4745

#### •참석대상 : 경영자 및 관리자

#### •주요내용

-신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품질경영 추진 5개년 계획 (50분)

· 공업진흥청장

-신경제 품질경영 어떻게 추진하나 설명회 (90분)

· 강원대 정규석 교수

· 아주대 장중순 교수

-품질명장 체험사례 발표 (30분)